

## 경과보고

평화와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.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염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. 그러하기에 우리 민족은 분단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숭한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 내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이 땅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과 헌신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.

지난 반세기에 걸친 민족민주운동의 소중한 역사적 성과와 최근 『평화통일연구회』와 『반핵평화운동연합』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『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』와 『새로운 평화운동 대중 단체 준비위원회』를 하나로 합쳐 새로운 평화·통일운동체 『**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**』(약칭 평통사)를 결성한다.

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역량을 더 크게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대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작년말 통합 실무회의를 거치고 올해 4월 6일 첫 통합준비위원회를 열면서부터 본격적인 통합 창립 작업에 들어갔다.

통합창립준비위원회는 양 단체의 내부 결의를 통해 통합창립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준비위원장을 홍근수가 맡고, 노정선, 노인영, 기세춘, 윤수경, 김승국, 조임숙(이상 평통연), 김상근, 문규현, 문부식, 유종순, 임종철, 함세웅(이상 새 평화단체) 등이 준비위원으로 일하였다. 이들의 회칙, 명칭, 사업계획, 조직체계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오늘 창립총회를 열 준비를 하였다.

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은 박수치는 두 손바닥이다. 마주잡는 두 손이다.

그렇다.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며,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다. 평화는 통일운동의 핵심 내용의 하나이며 결정적 방도이다. 동시에 민족통일은 우리 겨레가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데 절대절명의 경로이다. 이같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크나큰 대중의 여망과 역량을 끌어안고 오직 한 길,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.